

탄피·사격지침 등 잇단 물증...주범 꼭 찾아야

5·18 37주년 3대 의혹 이번엔 밝혀야

☞ 헬기 사격

5·18 집안군은 누구의 명령 아래 헬기 사격을 자행했는지. 적국도 아닌 자국민에게 헬기사격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장 헬기는 전일발발만 쏘았나.

37년간 묵역담오만 돌던 5·18 집안군 헬기 사격의 물증이 올해 초 옛 전남도청과 이웃한 광주 금남로 전일발발 내부 총탄흔적을 통해 드러난다. 당시 육군항공(헬기) 조종사, 지휘관 상당수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광주일보 취재결과(광주일보 5월1일자 2면) 드러나면서 더 늦기 전에 5·18 헬기사격의 진모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국군의 헬기가 사격명령을 최초 누구에게서 받고 어떤 이유로, 어느 곳에, 어떤 무기를 사용해 사격했는지, 그 피해는 무엇이었는지 등 헬기 사격관련 의혹 전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5·18진상 규명'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표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서 그

조종사·지휘관은 모르쇠...문대통령 진상 규명 강조 주목 5·18단체 "발포명령 정점 전두환 확인...전모 밝혀내야"

진모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목격담오만 돌던 5·18 집안군 헬기 사격을 공론화한 인물은 5·18의 사제로 널리 알려진 조 조비오 신부다.

조 신부는 지난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두 눈을 헬기사격을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군(軍)이 헬기 기총소사를 인정할 경우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을 넘어, 정당방위나 자위권 발동이라는 그간의 발표 이유가 모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 군은 절대 헬기 기총소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신부의 말처럼 군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사격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지금도 헬기사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관련 기록을 공개를 요구하는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측 요구에도 "기록물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조종사, 육군항공 지휘관들 역시 헬기사격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980년 5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1항공 여단(여단장 송진원 준장) 예하 61항공단(단장 손승열 대령) 예하 203항공대 소속

으로 UH-1헬기를 몰고 광주에 투입된 채 모(당시 소령)씨는 지난 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의 지휘관이었던 손승열씨의 경우 "당시 헬기작전의 모든 것은 여단장이 육본에 직접 보고했다"며 송진원씨에게 떠넘겨놓고선 며칠 후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육군항공을 지휘한 송진원씨 역시 "40년 다된 그 얘기를 왜 또 들춰내느냐,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다.

당시 육군항공(헬기) 지휘관들의 부인에도 헬기사격 실체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월 12일 법안감정서를 통해 "(광주 금남로) 전일발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142개의 총탄 흔적은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5·18헬기사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시 집안군 헬기사격은 육군본부 명령으로 자행됐다"며 1980년 5월 22일 각 부대에 하달된 육본 작전 지침(육본 작전참모부 작성)을 공개했다. 지침은 각 부대에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명령과 헬기사격 관련 구체적 지침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2월 5·18기념재단은 "5·18 당시 코브라 헬기 2대가 광주에 출동해 벌컨포 1000발 이상을 쏘았"이란 의견을 내놨다. 한 시민이 "1980년 5월 말 남구 봉선동 인근 논에서 주웠다"며 기증한 벌컨포 탄피 3점, 계엄군에 지급된 탄약 현황을 기록한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문서, 항공부대 지휘관 진술, 육군항공감실 문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다.

5·18단체들은 광주 도심 민간빌딩에서 드러난 헬기사격 흔적과 벌컨포 사격을 포함한 숲한 헬기사격 명령, 육군본부의 헬기사격 지침, 5·18 직후 발견된 벌컨포 탄피 등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헬기사격의 정점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12·12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의 명시적인 명령이 아니더라도 감히 누가 적국도 아닌 국민을 향해 헬기사격이라는 무자비한 살상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었겠느냐는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의심이다. 헬기사격 명령과 지침을 내린 황영서 당시 육군참모 차장, 김재명 육본 작전참모장 등이 '5·18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람이자 신군부 핵심'이었다는 사실 역시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21일 집단발포로 시민들 무장...22일 광주 대동세상

▲5월20일=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이었다. 밤 9시55분께 노동청 앞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차지선으로 돌진, 미처 피하지 못한 경찰 4명이 치어 숨졌다. 밤 11시께에는 시민 2명이 사망했다. 3공수여단이 광주역 광장에서 무장한 시민들을 향해 발포한 것이다. 광주에서의 최초 집단 발포였다.

앞서 오후 6시40분께는 공수부대의 연행을 직접 목격한 택시기사들이 200여대 택시를 몰고 나와 전조등 켜고 경적을 울리며 무등경기장에서 금남로까지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를 기념해 이날은 '민주기사의 날'로 정했다.

▲5월21일='부처님 오신 날'이었다. 저버려 평화와는 거리가 먼 '집단한 비극'이 광주를 엄습했다. 이날 새벽 4시30분께 광주역 광장에서 사망한 시체 2구가 태극기에 덮인 채 손수레에 실려 금남로에 나타났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수십만명이 항쟁에 적극 동참했다. 금남로에는 10만여명이 운집했다.

오후 1시, 전남도청 건물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애국가 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애국가에 맞춰 일제히 총성이 터져 나왔다. 시민들을 향해 조준된 무차별 집단 발포였다. 금남로는 삼시간에 피바다를 이뤘다. 이 집단 발포로 최소 54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시각 전남대 정문에서도 집단 발포가 자행됐다. 더 무자비했다. 임신부에게까지 조준사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당할 순 없다. 우리도 총이 있어야 한다"며 분노한 청년들이 무기를 찾아 나섰다. 이들은 광주 근교의 화



순·나주·장성·영광·담양 등지로 달려갔다. 화산탄광에서는 광부들의 도움으로 다량의 다이나마이트와 뇌관을, 경찰차지와 예비군 무기창고에서는 카빈소총 등을 확보, 청년들에게 분배했다. '시민군'의 탄생이었다. 오후 5시30분께 시민군이 도청으로 압박해 들어가 계엄군을 조선대로 총퇴각했다. 시민군은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 전역에서 계엄군을 몰아냈다. 광주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 광주시는 이날을 '광주 시민의 날'로 정하게 되고 있다.

이날 총격전으로 병원마다 총상환자로 만원이었다. 병원 앞에는 아저머니·아가씨들이 헌혈을 위해 몰려들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팔을 걷고 달려왔다.

▲5월22일=광주는 해방됐다. 그리고 대동세상이 열렸다. 광주시민의 높은 시민정신을 돋보였다. 시민군은 계엄군의 반격에 대비하는 한편 시내 치안을 담당했다. 광주에서는 강도·살인 등 강력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청 옥상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조기와 검은리본이 게양됐다. 평화적 해결을 찾고자 수습대책위도 꾸려졌다. 하지만 계엄군은 광주를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다. 광주는 고립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헬기 774차례 출동 711시간 작전 펼쳤다 20사단 투입 위해 21일 집단발포·헬기사격"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교수 학술대회 발표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에는 헬기가 총 774회 출동했고, 작전 시간은 711시간이었다",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와 헬기사격은 20사단의 병력 투입을 위한 작전이었다"

5·18민중항쟁 당시 최악의 학살로 지목되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는 20사단 병력을 투입하기 전 수송헬기의 작륙공격 확보작전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집단발포가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해온 신군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5·18 민주화운동의 재구성-계엄군의 사격행위를 중심으로'에서 1980년 5월20일 광주역 앞 사격,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다수 시민이 목격한 헬기사격은 20사단 병력투입을 위한 계획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80년 당시 계엄군 작전 내용은 기록의 왜곡·누락·은폐가 많아 개별 부대에 주목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다른 부대와 연계해서 살펴봐야 실체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21일 집단발포를 감행한

11공수의 주요 작전은 병력 배치를 위한 헬기작 확보였으며 계엄 당국이 헬기로 실어나르려 했던 병력은 당일 오전 8시에 광주 시내 집안을 시도했다가 시위대에 막혀 상무대로 차를 돌린 20사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날인 5월20일 밤 3공수 부대가 광주역 앞에서 집단발포를 감행했는데, 이 또한 20사단과 관련 있다고 강조했다. 기차를 타고 광주로 출동한 20사단 61연대의 1차 검열지 확보를 위해 3공수가 광주역 시위를 진압했다는 주장이다. 다수의 시민이 목격한 21일 헬기사격에는 20사단 병력 수송을 위해 파견된 UH-1H 기동헬기보다는 항공정찰과 무장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500MD 소형공격헬기 기 능성이 크다고 김 교수는 추론했다.

또 육군본부가 1981년 발간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자료집 부록을 근거로 5·18 당시 광주에는 총 774차례 헬기가 투입됐고, 이 헬기들은 711시간동안 작전을 펼쳤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광주역과 도청 앞 발포, 헬기사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자위권 발동 차원이 아니라 20사단 투입을 위한 작전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민주기사의 날' 행사가 지난 2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37년전의 차량시위 재현행사에 참여한 택시기사 30여명과 시민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7년전 그날처럼... '민주기사의 날' 차량시위 재현

1980년 5·18 당시 광주시민의 참여를 촉발시킨 차량시위대의 37년전 활약이 재현됐다.

5·18 민주항쟁 제37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지난 20일 '민주기사의 날' 37주년을 맞아 무등경기장·광주역·금남로까지 약 4.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옛 전남도청 탈출의 계기가 됐던 '기사의 차량시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70여대 택시에 탄 기사들은 이날 차량 보닛에 태극기와 '오일정신 계승', '5·18 민주항쟁'이라

고 적힌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37년전 그날의 시위를 연출했다. 민주기사의 대행진은 5·18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지난 1997년부터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희송 5·18 수습부상자 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5·18 민주항쟁 당시 조직적인 항쟁은 택시기사들이 처음이었다"며 "택시, 버스 등 200여대의 차량이 금남로로 몰려와 시위를 펼쳤고, 이 시위는 광주시민 10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기록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어! 문이 안 잠겼네"...이들 연속 상가 물건 훔친 40대

○...문이 잠겨있지 않은 1층 상가에 이들 연속 침입, 물건을 훔친 40대 경찰차서행.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에 광주시 남구 권산동 1층 상가 64이 잠겨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상가 안에 있던 전자레인지와 비누, 소주 등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가져가는 등 이들 동안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원룸 1층 상가에는 마침 주인인 B씨가 잠시 생활품 등을 보관해두고 있었다"며 "혼자 살고 있는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물건을 훔친 생각으로 상가 문을 열어놓았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 침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6타경 10446	1	무안군 해례면 송석리 85-1 1045㎡ 토소 169 1504㎡	답	27,094,000 27,094,000	일괄매각, 목책1현 창할부유지, 농지 취득자격증명요
	2	무안군 해례면 만포리 568 1048㎡	답	11,5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6타경 10507	1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516-18 549㎡ [정성 레지분1/4전부]	전	4,392,000 4,392,000	지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1	함평군 함평읍 장교리 5-1 6612㎡	전	58,846,800 58,846,800	현황답,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2016타경 52556	1	토소 5-2 2959㎡	전	26,335,1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토소 110-1 2003㎡	전	19,228,800	현황답,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3	토소 110-1 2003㎡	전	19,228,800	현황답, 농지취득 자격증명요
2017타경 33	1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77-9 564㎡	전	26,395,200	현황답, 농지취 득자격증명요
2017타경 156	1	신안군 압해읍 신갈리 934-1 2426㎡	답	43,6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신안군 하의면 울곡리 366-3 6086㎡	답	41,384,8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7타경 217	1	토소 366-4 3979㎡	답	27,057,2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영암군 영암읍 훈양리 447 876㎡	답	74,460,000	현황
2017타경 545	1	무안군 문남면 내리 14-1 1488㎡ [현황전일 취득자격증명요]	전	25,29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836-21 3000㎡ [농지 취득자격증명요]	답	129,000,000	매각대상아닌비 합수소지
[기타]					
2016타경 52426	1	신안군 지도읍 을대리 685 1154㎡ 토소 685 453.88㎡ [제외의 축사및퇴비사 3 동, 시설권 현시설]	목장용지 3동, 시설권 현시설	74,222,840 74,222,840	일괄매각, 제외의 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2017. 5.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정진안